

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, 성주군 표창 수상

성낙성 기자 jeb08585@ksmnews.co.kr 입력 | 수정 2024.10.27 20:09



↑ ↑ 성주농어촌공사 이돈문 지사장(좌)이 이행환 성주군수(우)로부터 표창을 수여받고있다.사진/성주군 제공

[경상매일신문=성낙성기자]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지난 25일 '군민중심 행복성주' 건설에 대한 기여로 성주군 표창패를 받았다.

성주지사는 지사에서 관리하는 7개 저수지, 7개 양수장 및 10개 배수장의 시설물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갑작스러운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. 수자원관리를 위한 스마트 재해예방계측 전환으로 성주군민이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했다.

또한, 지사는 설립 이래 친환경 용수관리를 통한 지역농민 영농여건 개선 등 살기 좋은 성주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. 향후에도 △(지역경관 개선) 생태공원조성사업(인촌지, 소성지) △(영농개선) 성남지구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△(지역약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) 농촌돌봄마을 시범단지조성사업 등 성주군 위탁사업을 시행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.

이돈문 성주지사장은 “앞으로도 성주군의 군정에 적극 협조해 더 많은 지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. 성주군과 상생의 가치를 지역민들에게 전하고, 공사의 비전인 ‘행복한 농어촌, 함께하는 KRC’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성주지사로 거듭나겠다”고 전했다.